

2010 제 27 호

# 서구의회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http://assembly.seo.incheon.kr>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복지도시위원회



# CONTENTS

- 4 • 의장 취임사
- 6 • 2014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건설 특별위원회 활동내용
- 8 •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내용
- 10 • 의원 기고문
- 18 • 제168회 임시회 부의안건 심사결과
- 19 • 사진으로 보는 의정 이모저모
- 24 • 기사로 읽는 서구의정
- 27 • 제6대 서구의회 제1기 의원현황
- 29 • 서구의회 방청 신청 등
- 30 • 중소기업 정보
- 34 • 지역쌀 팔아주기 운동 홍보
- 35 • 가을에 먹으면 좋은 음식과 운동



발행일 2010년 9월 27일 (제 27호)  
 발행인 의장 김영옥 편집인 서구 의회사무국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전화 032)560-4507~8 팩스 032)561-4336

• 본지에 게재된 내용 중 일부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무단복제를 금하며 허락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서구의회보는 인터넷 (<http://assembly.seo.incheon.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서구의회 의장  
김 영 옥

## 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저와 서구의회 동료의원 14명은 지난 6. 2. 지방선거에서 주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 우리 서구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지난 6. 2. 지방선거에서 주민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민심을 바탕으로 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한 차원 높은 의회운영으로 우리 서구 발전의 견인차가 되어 달라는 주민 여러분들의 깊은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의회를 운영하는데 주민여러분들의 고견을 겸허히 수렴하고 민의의 대변자로서 소임에 충실하기 위하여 초당적인 자세로 동료의원간의 일치된 의견조율을 통해 의회의 목소리를 하나로 만들어 제6대 의회가 보다 능률적인 의회, 주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민주주의의 초석인 지방자치가 부활한지도 어언 19년이 흘러 이제는 어엿한 청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본인은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의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무한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면서 앞으로의 의정추진 방향에 대하여 주민 여러분께 다음과 같은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언제나 주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의정을 펼치겠습니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가 되도록 정기 의정보고회, 의정발전협의회 운영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사를 의정에 반영하고, 늘 주민 여러분 곁에서 머리를 맞대고 의정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며 연구하는 열린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확실한 견제와 올바른 대안 제시로 새로운 의회상을 정립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하여 옳은 것은 협조하되, 잘못된 것은 과감히 견제함과 동시에 올바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정의 비효율과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서민경제와 사회적 약자를 우선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서민경제를 살리고 사회적 약자보호를 의정의 최우선 목표를 두고 집행부와 협의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지역간 균형개발을 유도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여 구정의 혜택이 주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함으로써 주민이 모두 더불어 잘 사는 행복한 서구를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이상 4가지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저희 14명의 의원은 모두 하나가 되어 주민여러분의 의회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생각입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지방자치는 말 그대로 지역의 주인인 주민 여러분이 동참하여 자율과 책임 속에 함께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주민 한 분 한 분 모두가 지역의 주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의정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고, 잘하는 점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잘못하는 점에 대하여는 따가운 질책과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9월  
제6대 서구의회 의장 김 영 옥 올림

# 2014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건설 특별위원회 활동내용



## 개 요

### ■ 구성일자

- 2010. 7. 16. (서구의회 제167회 임시회)

### ■ 구성이유

-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주경기장이 서구에 건설될 수 있도록 활동하기 위함

### ■ 구성현황

- 구성인원 : 총 7명

위 원 회 명	위 원 회 명	위 원 회 명
기획총무위원회 (4명)	김진규	
	문현주	
	정일우	
	문순석	간사
복지도시위원회 (3명)	이종민	
	박구	위원장
	박형렬	

## 위원회 활동일지

일련 번호	날 짜	활 동 내 역	관련의원	비 고
1	2010.07.07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서구건설 재검토 반대 서구민 쫓겨대회		서구청 뒤 마실거리
2	2010.07.16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서구건설 촉구 결의안 의결	박구 의원 외 13인	제16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3	2010.07.16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서구건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발의	박구 의원 외 6인	제16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4	2010.07.16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서구건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박구 의원 외 6인)
5	2010.07.16	제1차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서구건설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 박구의원 간사 : 문순석의원
6	2010.07.19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서구건설 촉구 서구민 쫓겨대회		석남동 체육공원
7	2010.07.19	제1차 간담회 개최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 방문 추진		제1차 간담회
8	2010.07.26	제2차 간담회 개최 •서명운동 준비		제2차 간담회
9	2010.07.29	제3차 간담회 개최		제3차 간담회
10	2010.08.03	제4차 간담회 개최 •서명운동 준비 철저 •인천시장과의 면담 추진		제4차 간담회
11	2010.08.10	제5차 간담회 개최 •주경기장 원안사수 결의대회 참여 •성명서, 서명부, 플래카드 내용완성		제5차 간담회
12	2010.08.10	2014 아시아경기대회 서구건설 주경기장 원안사수 결의대회		서구청 뒤 마실거리
13	2010.08.17	제6차 간담회 개최 •8월 반상회 시 홍보지와 서명지 배포 •9월말에 공청회 개최		제6차 간담회 개최
14	2010.08.24	제7차 간담회 개최 •특위 비교시찰 추진 •특위 정례화를 현장 간담회 형식 으로 조정하여 운영		제7차 간담회 개최

## 그동안의 추진사항

- 주민홍보를 위한 성명서(10만부), 서명부(1만부) 유인
- 인천시장 면담 요청(2010.8.3)
- 매주 화요일 오후 다중민원장소 주민홍보 및 서명(8/24~10/26)
- 2010.9.07. 아시아 경기대회 경기장 서구 건설 확정 발표
- 2010.9.27. 아시아 경기대회 주경기장 건설 특별위원회 상암 월드컵경기장 현장방문

#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내용



## 개요

### ■ 구성일자

- 2010. 7. 16. (서구의회 제167회 임시회)

### ■ 구성이유

- 서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루원시티 건설, 고속도로 주변 도시재생사업,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도시철도 2호선 등 여러사업의 밑그림인 동시에 성패를 좌우할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 구성현황

- 구성인원 : 총 7명

위원회명	위원회명	위원회명
기획총무위원회 (4명)	문 천 환	위원장
	정 일 우	
	문 순 석	
	김 병 근	
복지도시위원회 (3명)	박 형 렬	간 사
	강 상 원	
	이 윤 속	

## 위원회 활동일지

일련 번호	날 짜	활 동 내 역	관련의원	비 고
1	2010.07.16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백지화 전면철폐 촉구 결의안 의결	문천환 의원 외 13인	제16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	2010.07.16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발의	문천환 의원 외 6인	제16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3	2010.07.16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문천환 의원외 6인)
4	2010.07.16	제1차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추진 특별위원회 •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 문천환의원 간 사 : 박형렬의원
5	2010.07.30	제1차 간담회 개최 • 매주 목요일 간담회를 정례화 • 조속한 시일내에 인천시와 국토해양부 담당자 면담일정을 추진		
6	2010.08.06	제2차 간담회 개최 • 인천시 도시계획국장 면담 (인천시청 18일 10:00) • 12일 간담회는 의원연수 일정으로 취소 • 19일 간담회는 18일 인천시 방문 결과에 따라 당일 결정		
7	2010.08.18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장 면담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실
8	2010.08.26	제3차 간담회 개최 • 인천시 상대로 원안추진을 위한 반박자료 준비 • 성명서, 서명지를 준비하여 다음 회의 때 논의 • 인천시 건설교통위에 경인고속도로 관련 자료 요청		

## 그동안의 추진사항

- 간담회를 정례화 하여 운영(매주 목요일 10시, 기획총무위원회실)
- 법적효력문의(인천시 - 국토해양부간 합의서) → 인천시, 국토해양부, 행안부
- 인천시 도시계획국장 면담과 관련 인천시 입장(8/18)
  - 경인고속도로 간선화를 위한 지하차도에 대해 부정적 입장표명
  -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보다 관리권 이양이 급선무라고 판단



서구의회 부의장  
정 일 우

의/원/기/고/문

## 포스코건설, AG주경기장 포기로 본 서구의 앞날

잘 진행되던 사업들이 줄줄이 재검토 대상이 되었고 취소되는 일들이 지금 서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신축에 참여하기로 했던 포스코건설이 사업을 포기해 주경기장 신축이 무산 될 위기에 놓였다.

당초 인천시는 2009년 1월 21일 포스코 건설과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맺었고, 당해 9월 15일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건설 민간투자사업 사업제안서」를 제출받았고, 11월 20일 보완제출까지 제출받았다. 그리고 올해 1월 8일에도 「AG주경기장 민간 투자사업 관련 KDI 적격성조사 질의답변서」도 제출받았다.

송영길 시장이 당선된 이후 문학경기장 리모델링으로 힘이 실리고 있는데 누가 감히 주경기장 신축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고 할 수 있는가? 인천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 는 주무관청인 인천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포스코 건설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민간투자를 통한 주경기장 신축은 불가능하다. 새로운 민간투자자를 찾는다고 해도 1년 6개월 정도의 법적 절차를 밟아야하기 때문에 아시안게임 전까지 주경기장을 신축할 수 없 기 때문이다.

또한 인천시는 정부에 주경기장 신축을 위한 국고지원을 신청하지 않았다. 그리고 정부 측에 주경기장 신축 에 따른 합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요청도 하지 않았다.

국고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주경기장 신축에 따른 협의를 다시 해야 하는데 당초 정 부는 주경기장 신축을 반대했었고 민자사업으로 하기로 양자가 합의해 놓고 이제와 국고지원을 요청할 명분 도 없다. 또한 인천시와 정부가 다시 협의를 한다고 해도 정부가 들어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우려스럽다. 서구 주민들은 개탄하고 있다.

민간투자 중단을 방지하고 어떤 대안도 없으면 주경기장 신축은 포기하는 것인가?

민간투자 중단이 인천시와 송시장의 시나리오인가?

주경기장 짓는데 44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국고지원 받지 못하니 인천시는 정치인들이 도와주지 않 아 국고지원 못 받았다고 책임 떠넘기고, 민간사업자가 없으니 “문학경기장 리모델링 밖에 방법이 없습니 다.”라고 선언하겠다는 것인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인천시와 송영길 시장은 포스코건설과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신축에 따른 민자유치 재협상에 즉각 나설 것 을 촉구한다. 시간이 없다. 주경기장은 반드시 서구에 건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서구민들은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소각장, 발전소, 공해공단 등 좋지 않은 이미지만 생각하던 서구를 개선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어디로 날아가 버리는 것인가?

주경기장을 통하여 40억 아시아인에게 인천을 알리고 세계인들이 인천을 주목하는 축제의 장이 서구가 될 것이라는 꿈과 희망을 접어야 하는 것인가?

서구의 앞날이 암울할 뿐이다.

지도자는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책무가 있지 않은가? 가졌던 희망마저 꺾지 말고 인천시장은 시민과 약속 한 주경기장 원안건설을 즉각 추진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4 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서구건설 특별위원장

박 구

의/원/기/고/문

##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은 주민의 것으로 지어야합니다.”

제6대 서구의회 출범과 동시에 인천시에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서구건설 재검토 계획이 발표되었다.

올해 여름 우리 서구의 많은 주민들은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을 서구에 건립하기 위해 따가운 햇볕 속에서 많은 땀을 흘리셨고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도 자리를 뜨지 못하였다.

저와 제6대 서구의회의 동료의원들 또한 주민 여러분께 송구스런 마음으로 함께 자리하였다.

하지만 저는 향후 인천시에서 서구에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을 건립하리라 확신하며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다.

주민여러분도 모두 아시다시피, 서구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을 재검토 하겠다는 이유는 인천시의 약 9조 4,000억에 달하는 과도한 부채와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각종 개발이익의 환수가 어려워지고 있어 재정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인천시장이 한정된 재원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만, 인천시민의 합의를 거쳐 확정되었던 계획을 근본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40만 서구주민뿐 아니라 280만 인천시민과의 약속을 깨뜨리는 것이다.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을 서구에 건립해야할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미 인천시민과 합의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행정의 신뢰성 때문이다.

두 번째로 2002년의 감동이 살아있는 문학경기장은 그 원형 그대로 보존해야할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물이기 때문이다.

문학경기장을 리모델링 하면 월드컵 경기를 치룬 역사적 건물의 상징성을 훼손하게 되면서 그렇다고 완벽한 주경기장도 아닌 여러 가지 결함이 있는 건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인천시민에게 기형적인 주경기장과 역사적 가치가 있는 원형 그대로의 월드컵 경기장을 선택하라면 당연히 후자를 선택할 것이다.

세 번째로 지역간 균형발전과 미래에 대한 투자 측면에서도 경기장은 신축되어야 한다.

재정절감 같은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지역간 균형발전 또한 포기할 수 없는 행정의 원칙이다. 또한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가정형편이 어려워도 자녀의 교육비는 줄이지 않았다. 지금 당장은 어려워도 미래에 대한 희망이자 투자가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 서구는 각종 문화적 혜택에서 소외되고 온갖 기피시설의 밀집으로 고통 받아 왔다. 이제 발전하는 서구의 30여개 국·시책 사업 중에서도 아시안 게임주경기장은 그 열쇠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축되어야 한다.

저는 송영길 시장이 서구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말한 ‘단지 더 나은 방안을 찾아보려하는 것’이라는 말을 믿는다. 당초 계획된 민자유치를 통한 건설 방식은 투자기업이 직접 시공하는 조건으로 시공에 따른 이윤을 제외하면 기업은 훨씬 적은 금액만 투자하는 셈이다. 그런데도 30년간의 운영권을 주게 되면 해당 기업은 30년간 이윤추구를 최우선으로 할 것이 자명하다. 결국 시민의 이용부담이 커지게 되는 것이므로 민자유치를 통한 건설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는 방향이라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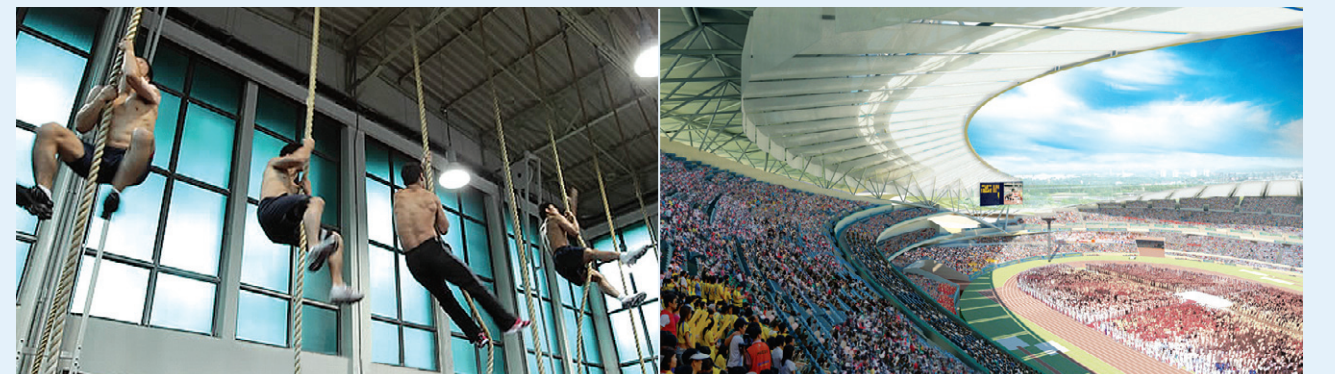
아무리 멋진 경기장을 지어도 비싸서 이용할 수 없다면 지역주민에게는 동네 헬스장보다도 못한 시설이 될 것이며, 더구나 80%의 돈은 인천시민이 내는데도 그렇다면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민자유치를 취소하면 주경기장 건설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신청자격이 생기므로 최선의 방법은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인천시민의 부담을 줄여야 하는 것이다. 만약에 국고보조금을 못 받는다면 차선책으로 시가 공사비를 전액 부담하되 입찰방식을 개선하고 정밀한 설계를 통해서 공사비를 낮추는 방안을 연구해야한다.

단지 우려되는 것은 송영길 시장과 인천시의 재검토 발언은 인천시의 재정악화와 향후 부동산 경기하락 전망에 따라서 건전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시민에게 최대한의 편익을 주기위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정치적이고 감정적인 문제로 호도하려는 행태이다.

저는 분명히 확신한다. 송영길 시장과 인천시가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면 서구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은 경제성과 사회적 복지 시설이 충분히 고려된 설계로 인천시민에게 사랑받는 체육·문화·복지 시설로 태어날 것이다.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신설뿐만 아니라 수도권매립지 문제, 루원시티, 도시철도 2호선 문제 등 주민여러분의 권리와 복지를 위해 우리 서구 주민과 인천시민의 합리적인 사고와 격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서구의회 기획총무위원장  
문 현 주

의/원/기/고/문

## 환경피해가 예상되는 선박조선·수리단지 조성 어떻게 볼 것인가

2010년 7월 9일자 인천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수도권 매립지 거점도 전면 해상에 (주)인천조선이 요청한 선박조선·수리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175,500㎡(53,088평) 매립을 허가하고자 하는데 우리구의 의견이 어떤가를 묻는 공문을 보냈다.

집행부(구청)에서는 인근 세어도 주민의 어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암도 임시 선착장 설치공사에 지장이 없다면 매립하여 단지를 조성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형태의 공문을 회신했다.

이에 우리의회는 제168회 정례회에서 정일우 부의장의 구정질문을 통해 “수도권 매립지를 포함해서 비 환경적 혐오시설이 무수히 많다. 그런데 또 다른 대규모 공해유발 단지를 만들고자 한다. 우리구의 대응이 너무 안일했지 않나 대안은 무엇인가”라며 질타했다.

구청장은 답변을 통해 어떤 형태든 환경피해를 유발하는 대규모 공사는 반대하며 전담부서를 선정해서 사전에 막겠다고 했다.

이 시점에서 단일 세계 최대 쓰레기 매립장이 있고 각종 공해유발업체가 어느 지역보다 많은 우리 서구에 “공해배출이 예상되는 선박수리단지 조성은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해 주민대표인 우리의회에서 객관적이고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하여 이해와 소통을 넓히고자 한다.

먼저, 우리구의 시대변화에 따른 사회·주민정서적 관점에서 보겠다.

우리구에 위치하고 있는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면적은 19,616천㎡(5,934천평)로 131,650천㎡(39,824천평)인 서구 전체면적의 15%에 해당되고 1992년부터 현재까지 수도권에서 특히 서울에서 나오는 쓰레기 53억 ton이 매립되었으며 현재에도 1일 1천여 대 17천ton이 매립되고 있고 다시 매립기간 연장이라는 새로운 갈등이 표면화 되고 있다. 그리고 한국중부발전(주)을 비롯한 대규모 발전설비 5곳이 우리구에 집중되어 있어 수도권 전력공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이를 서울·경기 등에 제공하기 위해 인체유해 전자파가 발생하고 시각공해인 철탑이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 또한 주물공단 뿐만 아니라 기타 환경산업이 매립과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우리구에 집중되었다.

위와 같이 쓰레기처리, 전력생산 등을 위한 비환경적이고 파괴적인 산업이 수도권 주민 특히, 서울시민을 위해 서해안의 갯벌을 끼고 있는 우리 서구가 희생양이자 최적으로 판단하여 시민사회구성이 미약하고 주민대표기구가 없는 시대에 권위를 동원한 힘에 의해 엄청난 환경오염시설이 우리주변을 잠식하였고 이로 인한 주민 반발을 금전적 보상이라는 금권을 통해 해결하고자 함으로써 지역간, 개인간 갈등을 증폭시켜 정부정책에 불신을 확대 재생산 시켰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떠한 산업시설도 의심하게 되고 우리지역은 안된다는 Nimby현상을 심화시켰다.

다만 쓰레기와 자원의 개념이 모호하고 자연친화적 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시대의 도래는 새로운 고민을 만들고 있다.

위의 관점에서 본다면 선박조선·수리조성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것은 매우 자명한 것이다.

둘째, 환경적 관점에서 본다면 공유수면 매립은 21세기 환경정책과 너무 괴리가 큰 환경파괴적인 사업으로 외국의 경우에는 매우 어려운 사업임에 틀림이 없고 과학기술의 발달과 혁신으로 비산먼지, 기름유출, 유독성페인트의 발생을 차단할 수 있다고 하나 어느 산업이든 환경 저해요인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매립하고자 하는 지역이 주민이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고 주변에 유사한 비 친화적 환경사업이 산재해 있어 주민이 무관심으로 일관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부가가치면에서 보면, 분명 어업으로 살아가는 세어도 주민의 피해는 명확할 것이고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어도 어촌체험마을, 자연을 살린 관광명소 개발과 배치되어 정책 간 마찰이 예상되기도 한다.

그러나 바다와 인접한 우리는 해양산업유치와 발전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좋은 방안임에는 이의가 없으며 국토해양부에서도 선박관리 산업을 2020년까지 10조원의 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이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다.

단지 조성자료에 의하면 국내최대단지로 우리지역 주민에게 고용기회가 확대되고 소득과 소비가 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선박관리산업은 장치산업과 서비스산업의 복합으로 최첨단 산업 등 국내 기간산업보다 고용유발효과가 매우 커 지역고용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와 구세인 재산세, 사업소세, 면허세 수입증가로 세수에도 어느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면 과연 우리의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서구의 현대발전과정에서 주민에게 스며든 환경피해의 정서적 요인, 오염과 생태계 교란 그리고 세어도 주민의 생존권과 삶의 부정적 변화를 면밀히, 충분히 헤아려야 하며

둘째는 위 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유발효과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경기침체에 주민이 매우 민감하게 받아드리는 경제 활성화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지역현안은 주민의 정서와 지역경제발전, 최대의 사회복지는 고용이라는 상반된 테마를 잘 조화 할 수 있도록 당의 이해관계를 떠나 지혜와 혜안을 찾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것이다.



서구의회 의원  
홍 순 목

의/원/기/고/문

## 인천 서북부 발전을 위한 제언

6·2 지방선거의 후유증이 가실 줄을 모른다. 지방선거를 전후하여 인천시 서구에서 진행되는 대다수 국시책 사업들이 재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지면을 연일 장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의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서구건설의 재검토를 필두로 하여 한국토지주택(LH)공사의 검단2신도시 재검토, 지식경제부의 인천시 5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실사 등 정신을 차리지 못할 만큼 용단폭격식 재검토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당 지역의 정치인과 주민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다. 전에는 잘나가던 사업이 지방권력이 바뀐 이 시점에서 다 뒤집어지는가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시책 사업들이 순탄하게 진행된 적은 없었다.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은 지중화 논란과 단계별 개통이라는 질곡을 거쳤고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신설도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받지 못해 곤란을 겪었다.

검단신도시는 주민들이 빨리 지정해달라고 서명운동을 벌인 끝에도 군사 동의 문제로 인해 축소와 추가의 과정을 겪어야 했다. 경인아라뱃길은 방수로 공사가 환경 파괴의 문제로 장기간 표류한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다시한번 재검토 논란이라는 어려움에 봉착한 서구는 기회의 땅에서 버려진 땅으로 전락할 것인가? 그건 결코 아니다. 기회에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위기가 따른다. 부동산 활황기에 장밋빛 꿈에 부풀어 대책 없이 빚을 끌어 건설된 '두바이'는 경제위기를 맞아 애물단지로 전락하여 세계경제의 짐이 되고 있다. 반대로 위기의 상황에서라도 잘만 하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그렇다면 위기의 서구를 어떻게 하면 다시 기회의 서구로 만들 수 있을까?

첫째, 이전보다 더 획기적인 교통인프라를 우선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현재 김포시는 유영록 시장이 고가로 계획됐던 김포경전철 사업을 폐지하고 9호선 중전철을 연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포와 인접한 검단지역도 서울 직결 전철노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나 누구도 독

자적인 노선계획은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따라서 김포시와 인천시는 서북부에 9호선 연결을 위해 협력함으로써 윈-윈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검단신도시와 한강신도시를 동일 선상에서 두고 각종 앵커시설 유치나 교통망해소 등 신도시의 성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은 상상만 해도 획기적이다.

둘째, 서북부 해안지역의 산업벨트를 강화하고 강화군과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해야 한다. 최근 송영길 인천시장은 청라국제도시에 대기업을 유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그 계획은 검단산업단지에서 김포시 학운산업단지에 이르는 지역으로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 이곳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서북부 신산업벨트로 조성된다면 수도권 핵심코어가 될 수 있다. 반면 강화군은 역사와 전통문화 그리고 자연이 어우러진 관광 및 남북한 경제교류의 확대에 대비한 친환경 물류단지로 개발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최근 강화군은 세수확보를 위해 산업단지 추진의사를 표명하였으나 강화군의 정체성 문제와 중복 과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서북부지역을 교육도시로 조성해야 한다. 최근 인천시는 중앙대학교 이과대학 및 종합병원을 검단신도시 내로 이전하기로 MOU를 체결하였다. 본 계약을 체결하기까지는 각종 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는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이다. 특수목적 신설계획도 지켜져야 한다. 지역에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여 그 인재를 키우고, 그 인재가 그 지역에서 일하고 정착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자족도시로 가는 첫걸음이 아니겠는가?

아직도 서구는 기회의 땅이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개발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어떻게 보완하고 어떻게 재구성하느냐에 따라 기회의 땅에서 성공을 견인해 낼 수 있다.



# 제168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 심사결과

## ■ 총건 : 총17건

조례안12건(기획총무9건, 복지도시3건), 예산안1, 동의안1, 승인안2, 의견제시의건1

의안 번호	부 의 안 건 명	발 의 자	소 관 위 원 회 (담당부서)	의안 번호
1610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서구청장	기획총무 (재무과)	원안 가결
1618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구청장	기획총무 (기획홍보실)	원안 가결
1619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구청장	기획총무 (기획홍보실)	수정 가결
1620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구청장	기획총무 (기획홍보실)	수정 가결
1621	인천광역시 서구 외국어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구청장	기획총무 (교육지원과)	수정 가결
1622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구청장	기획총무 (세무과)	수정 가결
1623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 조사에 관한 조례안	서구청장	기획총무 (지역경제과)	철회
1624	인천광역시 서구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구청장	기획총무 (지역경제과)	원안 가결
1625	인천광역시 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	서구청장	기획총무 (지역경제과)	원안 가결
1626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구청장	기획총무 (보건행정과)	원안 가결
1627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구청장	복지도시 (복지서비스과)	수정 가결
1628	인천광역시 서구노인복지회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구청장	복지도시 (복지서비스과)	원안 가결
1629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구청장	복지도시 (청소행정과)	원안 가결
1630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서구청장	기획총무 복지도시	수정 가결
1631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서구청장	기획총무 복지도시	원안 가결
1632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위탁에 따른 동의안	서구청장	복지도시 (문화관광체육과)	원안 가결
1633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 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서구청장	복지도시 (도시개발과)	찬성 의견

## 사진으로 보는 의정 이모저모



▲ 제167회 서구의회 임시회



▲ 제6대 서구의회 의원 선거문 낭독



▲ 제6대 제1기 의장 및 부의장 투표



▲ 민선6대 전년성 서구청장 취임식



▲ 김영옥 의장 언론과의 인터뷰



▲ 제167회 서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업무보고

# 사진으로 보는 의정 이모저모



▲ 제167회 서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업무보고



▲ 주경기장 관련 송영길 시장과의 대화



▲ 서구의회 의장단 서인천우체국 방문



▲ 서구의회 의장단 서부교육청 방문



▲ 2010 서구 복지박람회 참석



▲ 2010 서구여성대회 의장 축사



▲ 서구의회 의장단 구청장 방문



▲ 서구의회 의장단 서부소방서 방문



▲ 서구의회 의장단 노인복지관 방문



▲ 서구의회 의장단 서인천세무서 방문



▲ 서구의회 의장단 서부경찰서 방문



▲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원안사수 꺾기대회

# 사진으로 보는 의정 이모저모



▲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특별위원회 간담회



▲ 제167회 서구의회 본회의 진행장면



▲ 아시안게임 주경기장관련 서구발전협의회 주최 바자회



▲ 세어도 선착장 현장방문



▲ 서구의회 중소기업 경영자협의회 간담회



▲ 2010년도 국시책사업 보고회



▲ 제168회 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서구건설염원 서명운동



▲ 의원 성희룡 예방 특별교육



▲ 2010 을지연습 훈련장 격려방문



▲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특위, 인천시에 서명부 제출



▲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 기사로 읽는 서/구/의/정

### >> 제6대 서구의회 개원식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는 지난 7월 7일 의회동 본회의장에서 제6대 서구의회 개원식을 열었다.

이날 개원식은 역대 서구의회 의원들, 제6대 서구의원들 및 전년성 서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어려운 경제적 여건과 주민 정서를 고려하여 차분하고 간소하게 진행되었다.

김영옥 서구의회 의장은 이날 개원식에서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또한 사람이 중심인 서구, 행복을 만드는 희망도시 건설에 집행부와 함께 화합하고 협력하자고 말했다.

이날 의원들은 40만 서구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생활 정치를 실현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체감할 수 있는 질 높은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였다.

### >> 서구의회 의원 인천시장과의 간담회 참석



김영옥 서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서구의회 의원들은 지난 7월 9일 서구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아시안 게임 주경기장 신설과 관련한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간담회는 지역주민 300여명이 참석하여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는데, 송영길 인천시장은 인사말에서 소통행정을 강조하며 솔직하게 논의하자고 제안하였고 인천시의 재정 문제 등 주경기장 건설 재검토 결정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에 김영옥 의장은 송 시장이 시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걱정하는 바는 이해하나, 문학 경기장 보수비용에 민간기업의 투자비용을 고려하면 주경기장을 건설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송 시장은 주경기장 건설 문제는 인천시의 중요한 현안사항 중 하나라며 국고 보조금을 받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겠다고 답하였다.

## 기사로 읽는 서/구/의/정

### >> 서구의회 의원 성희롱예방 특별교육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는 7월 29일 의회동 간담회장에서 성희롱 예방특별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최근 언론을 통하여 사회지도층 인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성희롱 관련 보도가 잇달음에 따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의뢰하여 의원들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김영옥 의장은 인사말에서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 2 규정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되어 있고, 우리 의원 및 직원들이 앞장서서 밝고 건강한 직장 문화를 만들어나가자는 취지 하에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교육이 끝난 후 의원들은 양성 평등 보호와 성폭력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의회 차원에서 노력하기로 하였다.

### >> 서구의회 - 중소기업 경영자협의회 간담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는 8월 21일 서구관내 중소기업 경영자협의회와의 정책간담회를 실시했다.

김영옥 서구의회 의장은 모두인사에서 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이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현실에 비추어 서구의회가 중심으로 집행부와 함께 관내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는 한편, 중소기업경영자협의회에서도 지역일자리 창출 등 서민고용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했다.

이번 간담회는 관내 중소기업체가 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첫 단추를 끼우는 과정으로 서로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관심사에 대한 협의를 통해 지역발전을 모색하는 자리를 위하여 마련되었다.

## 기사로 읽는 서/구/의/정

### >> 제168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는 지난 9월2일부터 9월 16일까지 제168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가졌다.

1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168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조례안 심사 등의 일정으로 이뤄졌다.

또한 10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7명의 의원이 총 22건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서구청장의 답변을 받았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기존의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이 아닌 의원별로 질문하고 서구청장이 바로 답변하는 방식으로 하여 제5대 서구의회 때와 차이를 두었다.

### >> 서구의회 의원 사회복지시설 위문 방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들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9월 13, 14, 17일 3일간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였다.

김영옥 의장을 비롯한 서구의회 의원들은 13일 심곡동에 위치한 은혜의 집, 예진원 방문을 시작으로 14일에는 인정효행원, 가족사랑케어 센터를 찾았고 17일에는 내리요양원, 보은실버 센터 등 총 11곳의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시설 직원 및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격려금을 전달하였다.

김영옥 서구의회 의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임무에 충실한 시설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현하면서 "민족의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 주변에는 이럴 때일수록 외로움을 느끼고 관심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많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외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제6대 제1기 서구의회 의원현황

의 장



**김 영 옥**  
(검암경서동, 연희동)

부 의 장



**정 일 우**  
(신현원창, 석남1·2·3동)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 구**  
(가정1·2·3동)

간 사



**문 천 환**  
(가정1·2·3동)

위 원



**김 진 규**  
(검단1·2·3·4동)

위 원



**박 형 렬**  
(신현원창, 석남1·2·3동)

위 원



**강 상 원**  
(가좌1·2·3·4동)

# 제6대 제1기 서구의회 의원현황

## 기 획 총 무 위 원 회



**문 현 주**  
(검암경서동, 연회동)



**김 진 규**  
(검단1·2·3·4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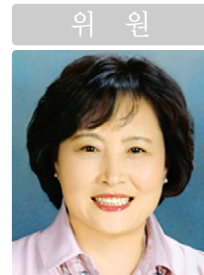
**문 천 환**  
(가정1·2·3동)



**정 일 우**  
(신현원창, 석남1·2·3동)



**문 순 석**  
(가좌1·2·3·4동)



**김 병 근**  
(비례대표)

## 복 지 도 시 위 원 회



**이 상 섭**  
(신현원창, 석남1·2·3동)



**강 상 원**  
(가좌1·2·3·4동)



**이 종 민**  
(검단1·2·3·4동)



**홍 순 목**  
(검단1·2·3·4동)



**박 구**  
(가정1·2·3동)



**박 형 렬**  
(신현원창, 석남1·2·3동)



**이 윤 숙**  
(비례대표)

## 의 회 방 청 안 내

### 방청을 하시려면

- ▶ **방청절차** : 방청신청 → 방청허가 → 방청권교부 → 방청
- ▶ **방청신청** : 일반신청(개인) - 회의 개최일 의회사무국 방문 / 단체신청(10인 이상) - 회의 개최 전일까지 공문 접수
- ▶ **방청문의** : 서구 의회사무국 의정팀 (☎ 560-5852)

###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 섭취나 깍연행위
- 신문 기타 서류의 열독 행위
-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 청원 및 진정제도 운영

구의회에서는 구민들의 바람과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 근본적인 대책 수립 및 시책결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청원제도 및 진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 분	청 원	진 정
정 의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주민이 문서로 희망사항이나 바라는 바를 진술하는 것	- 진정인이 의회의장, 상임위원장, 의회위원에게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의 형태로 제출한 것
성 립	- 청원을 소개하는 의회위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하여 청원서 제출	- 진정서에 진정한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진정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접수
요 건	- 청원서에 청원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 - 청원을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작성·첨부	
불수리 사 항	-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 법령에 위배된 것	-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 - 의회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 국가원수와 국가, 지방기관 및 기관장을 모독하는 사항 -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당해연도에 2건이상 제출한 경우, 나중에 제출한 진정서 - 진정인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사항

※ 기타 청원이나 진정에 대한 문의는 서구 의회사무국(의사팀)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560-5858)

## 투 고 안 내

서구의회에서는 "서구의회보"에 게재할 구민여러분의 뜻과 정성이 담긴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글이나, 바라는 사항을 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투고분야** : 의회에 관한 제언, 주민논단, 시, 수필, 평론, 콩트 등
- ▶ **발행주기** : 1년 4회
- ▶ **분 량** : 원고지 7~8매 내외
- ▶ **제출기한** : 수시접수
- ▶ **기타사항** : 보내는 분의 주소, 성명, 연락처 및 사진 1매
- ▶ **보내실곳** : 우 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번지(심곡동 244) 서구 의회사무국(의정팀)  
☎ 560-5852 FAX 561-4336

## 중/소/기/업 정보

서구의회와 인천서구 중소기업경영자 협의회는 지난 7월 21일 의회동에서 정책간담회를 열어 관내 중소기업체를 지원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1회성이 모임이 아닌 정기적인 자리를 만들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에 서구의회는 중소기업 지원의 일환으로 2회에 걸쳐 서구의회보에 관내 중소기업 정보(www.ccmsew.or.kr)를 게재하오니 구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 바랍니다.

연번	회사명	대표자	업 체 주 소	전화번호	주 생 산 품	회사홈페이지
1	(주)진영LDM	심영수	대곡동 655	562-1924	건축, 인테리어, 가구부자재 및 PVC 발포판재, UV그래픽인쇄	jyp21.co.kr
2	(주)아모스아인스 가구	이순중	마전동 35	567-7500	목재가구(사무용가구)	amosains.com
3	(주)나스켄	손대업	석남동 223-427	581-2777	레저스포츠용품	naschem.co.kr
4	인천형기	서달문	부평구 청천동 425-1 우림라이온스벨리 A동 709호	502-7343	트럭스케일, 무인자동화시스템제조, 건설저울, 산업용계량기	iis-scale.com
5	(주)금곡철강 산업	이형수	금곡동 677-2	564-6759	스틸그레이팅, 다열바, 외구조물	kgsi.co.kr
6	이글아이드	김진호	가좌동 173-101	516-1680	골프화, 골프용품	eagleeyed.co.kr
7	(주)부일	문득환	강화군 불은면 삼동암리 92번지	566-4063	내화물	ktdom.com
8	경서기계산업	윤태문	석남동 223-514	577-4646	한약추출기 제조업	kyungseo.co.kr
9	(주)일진 테크놀로지	천인자	불로동 200-1	564-2537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iljin.koreasme.com
10	(주)연자방	이주열	가좌동 589-6	556-8821~2	면류, 전두부, 절입류	yonjabang.com
11	(주)구영에스피	임수근	석남동 223-533	576-8711	광고물, 명판	kuyoungsp.co.kr
12	홈타임	신용숙	대곡동 525-3	565-5545	가구(성인 및 주니어)	hometime.co.kr
13	(주)대림테크	서동만	가좌동 480-9	583-2021~4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14	(주)삼성수출포장	제은호	가좌동 153-8	574-6601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	samsungpk.co.kr
15	성일금속	정호영	불로동 563-4	563-0602	수도부속	bestmetal.co.kr

연번	회사명	대표자	업 체 주 소	전화번호	주 생 산 품	회사홈페이지
16	(주)장형기업	소환순	오류동 410-472	562-1658	건설폐기물 처리업	jangbyung.com
17	(주)엔에코	김재우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524-21번지	031-997-1646~7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eneco.me
18	(주)모자이크	이중호	왕길동 209-4	563-7505	가구제조, 인테리어, 시공, 목재판매	mosaicgagu.co.kr
19	대륜 ENG	최종묵	마전동 43-1	565-1538	식품기계 밸브	daeryunn.com
20	(주)3국산업	오현규	가좌동 263-5	584-6860	산업용릴, 공압호스, 크레인용 브레이크	samkook.co.kr
21	(주)미래그린	박금남	가좌동 602-36 미래그린 A동 204호	581-0171	금속 도금 일체(신주, 크롬, 동브론즈, 금, 은도금, 사티나, 흠니켈, 무광도금)	
22	(주)미트뱅크	김영준	오류동 47-3	561-5209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 (양념돈육, 수제소시지, 단체급식)	meatbank.co.kr
23	베스트푸드 시스템(주)	문종일	심곡동 289-3	568-2201 561-2337	학교급식, 구내식당위탁경영 (산업체급식), 행사도시락	
24	디에이치엠(주)	탁봉열	불로동 626-5	527-5782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dh-m.co.kr
25	삼일 T&C(주)	이상기	천청동 67-60번지	526-3131	플라스틱 가구	
26	인성엔프라(주)	이중석	가좌동 560-4	576-8321	LED 경관조명, 초정밀 플라스틱 사출 성형	insungenpla.co.kr
27	가림테크	이중복	석남동223-637	577-9146	건축자재, 주방용품, 사무용품, 프레스가공전문	
28	(주)케이엔에스 아이엔티	김권수	가좌동 178-270 202호	572-2846	유, 공압 SEAL	kns-int.com
29	(주)클레슨	양희준	석남동 223-267	888-8114	부품세척기&자동세척기	cleson.net
30	크린에어테크(주)	서현석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산업단지 A-23	584-8301	대기오염방지시설, 산업용집진기/청소기 페인트, 미스트제거, 분진, 흠, 냄새제거	cleanat.com
31	(주)스피코	장영복	가좌동173-400	584-6677~8	스프링제조 및 AssY업체	seoilspr.com
32	(주)파트라	이동휘	가좌동 173-296	583-3340	자동차내장재 전자부품, LED조명, 무역	gopatra.co.kr
33	송화	송시재	가좌 1동 585-41	584-9708	엠프등	sounddrive.co.kr
34	(주)인투스디자인 가구	홍성경	가좌동 150-34	576-8401	목재가구 제조업	
35	동북아특장(주)	박해영	가좌1동 173-351	581-1000	자동차 정비업(전자총수리 특수특장 차수리 및 개조 주문제작 유입기기수리)	dongbukah.com
36	한국기어	오동문	가좌동 173-215번지 105, 106호	581-8386	기어 감속기, 정량펌프기어	
37	(주)동양철강폼텍	김상석	마전동 632-4	563-7944	내부유로품, 외부거푸집, 고철전문매입	
38	한국동우개발(주)	김영호	원당동 651-10	566-8171	자동세운기 판매임대, 철구조물제작 및 시공, 도로시설물공사, 펌프	dong-woo.co.kr
39	(주)동혁종합건설	조경범	금곡동 251-1	569-1541~2	건설, 토목건축	
40	(주)서전발맥	이종실	김포시 대곶면 초원지리 595	031-981-3121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valmac.co.kr
41	삼신캐터링	이환설	경서동 경서지금 54블럭 7롯데	569-5505	학교급식, 식자재유통, 프렌차이즈, 종합식품가공	
42	(주)세광유리	윤남수	마전동 18-1	562-9864	인테리어유리, 가구유리 (디지털인쇄유리)	
43	정원특수금속(주)	임순녀	당하동 661-16	563-0043	레이저, 프라즈마, 워터젯 절단 및 절곡	jwsts.com
44	(주)다이스콤	이주동	불로동 253-5	564-8253	LED 조명등, LED 투광등, 가로등, 보안등	dypower.co.kr
45	우성기업	김제환	불로동 576-15	563-9240	자동차 부품 제조	

연번	회사명	대표자	업 체 주 소	전화번호	주 생 산 품	회사홈페이지
46	(주)은성일렉콤	임인걸	석남동 650-94	577-8713	인쇄회로기판	espcb.co.kr
47	강문특수목재	강명환	오류동 410-90	569-6500	대일수출재, 목재주택재, 산업재, 조경재	
48	이스틸팁버	이중수	가좌동 178-58	574-9893	인테리어공사 가구 및 목제품	
49	모스트	김명유	가좌동 564-13번지	504-6611	핸드폰KEYPAD 레이저마킹	mostli.co.kr
50	(주)진성하이테크	이명섭	원창동 382-40	573-3991	금속위생용품 제조업	jshanaro.co.kr
51	(주)연우	기중현	가좌동 473-5	575-8811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화장품 용기 부자재)	yonwookorea.com
52	부성정밀(주)	신호철	당하동 285-6	561-9390	산업기계부품, 중장비부품, 농기계부품	
53	웅진합금	양충웅	오류동 755-2	563-6713	알루미늄주물 비철금속	
54	(주)위드퍼	한상담	금곡동 278-3	446-5364	주방가구	
55	(주)서광금속	서우란	경서동 685-12	564-2736	선철주물 주조업	
56	(주)삼희축산	장영태	가좌4동 473-9	577-6192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	
57	대경하이테크	조한배	원당동 86-14	563-3323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58	트리젠	한경현	오류동 403-2	565-6815	전자부품 제조업(방열판, 케이스핸들)	trigenheatsink.co.kr
59	역조종합기계(주)	곽재원	원창동 382-106	578-3060	금속기구 제조업 (중방기기 및 의료기구)	ecgm.co.kr
60	(주)신강전기	명재문	경서동 697-3	561-8000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sk-motor.co.kr
61	미성칼라창호(주)	김명식	왕길동 186-2	562-2493	담장, 계단난간대, 발코니	msfence.co.kr
62	상일금속(주)	이규홍	가좌동 150-97	575-2302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귀금속, 금, 은, 백금)	
63	(주)신성위더스	정재훈	당하동765-17	564-1251~2	주방가구 케이스	
64	(주)디에스엘	이춘구	가좌동 178-165	584-3877	산업용 비경화고무제품 제조업	bridgedsl.com
65	대명철강	이영찬	원당동636	564-4426	절단, 절곡외 (칸마기부품)	
66	화성프라스틱	이기선	가좌동 473-4	572-2442	프라스틱성형	
67	대신산업	구성용	왕길동 350-5번지	562-1764~5	F.R.P (강화플라스틱)	
68	(주)동양목재	김창환	가좌동 178-59	578-8121	목재보존, 방부처리, 도장 및 유사처리업	dongyang.co.kr
69	덕흥산업(주)	이성탄	석남동 223-541 B동	573-9833	여성용 정장 제조업, 학생복	
70	대륜맥가이버 모터스	원유석	당하동 445	563-3006	자동차정비	
71	삼덕이화공업(주)	남강우	석남동 650-12	581-8062~5	산업용 비경화고무제품 제조업	samduck.com
72	극동전자정밀(주)	김동일	원창동 382-73	582-0071	커넥터, 케이블하네스	kdep.co.kr
73	한영정밀공업사	김숙철	마전동 395-1	563-9334	각종 샤프트 및 핀 가공, 전자부품 (휴대폰, LCD, 전자레인지, 기타등)	
74	동하산업	음성하	당하동 491-5	563-4660	암롤제조, 청소차박스	
75	우리기업(주)	박종필	가좌동 178-230	572-4615	UV코팅, 모양지접착, 시트접착	

연번	회사명	대표자	업 체 주 소	전화번호	주 생 산 품	회사홈페이지
76	가정대형점	이현우	가정1동 472-6	564-8113	건설기계 특장제작	trago.co.kr
77	투인산업(주)	박준희	백석동 208	564-6907~8	금속표시판 제조업	tooin.co.kr
78	서울기계	손금연	경서동 696-8	561-9159	기계부품(프레스), 금형	pressmold.com
79	(주)동진사랑철강	임재하	당하동 491-4	564-2377	철판사링, 절곡	
80	현대기계	장도준	동구 만석동 1-19	578-0945	호이스트 크레인제조	hdcrane.co.kr
81	(주)카라인 종합정비공장	김창웅	경서동 249-26	564-1517	자동차정비검사, 부품판매	
82	이레화학	조남채	가좌동 178-137	584-8091	유기용제	irchem.co.kr
83	(주)상일시스템	김채연	석남동 223-561	574-2100	통신기기, 방송장비, 전자부품	sangilsystem.com
84	세창산업기계(주)	배동하	왕길동 18번지	563-2223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85	화신ENG(주)	정동근	구로구 구로동 604-1 구로기계 공구상가 B블록 10동 122호	02-2677-8818	바이브레이터	hwasin-vibrator.co.kr
86	(주)재영전자	유재근	석남동223-430번지	583-8855	전자부품, P.C.B, HASLPRE-FLUX(O.S.P)전문	
87	서일정공사	채양묵	경서동 673-49	575-4394	금속 스프링 제조업	seoilst.com
88	대한강업(주)	권기호	경서동 679 6BL 1LOT	561-5900	철스크랩가공업	
89	해동금속	양규식	가좌동 560-6	571-1603	열처리 브레이징, 건축자재	haedongmetal.com
90	진우산업	최형진	가좌동 180-165	577-7522	전자·통신 Case 정밀판금	
91	(주)성일특장	염승식	당하동 748-2	564-2796	특장차	
92	대흥금속	김홍만	석남동 223-539 B동 203호	571-8640	자동차부품 및 볼밸브	
93	경인특장(주)	정춘윤	왕길동 54-11	563-0303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	topcold.com
94	안성스텐공업	안영주	당하동 955-3	563-9551	배전반 및 전기자동차제어반 제조업	assts.co.kr
95	(주)나산건업	나종식	석남동 223-630	572-6069	하이사시, 유리, 잡철	
96	(주)대영부스터 펌프	강병식	당하동 828-6	563-7273	부스터펌프, 산업용펌프	펌프모터.kr
97	에바콘	노창식	왕길동 71-28	563-1844~5	냉각기제작	evapcon.com
98	(주)디에스피	이삼식	경서동 673-50	562-9771	사무용의자	dspworld.co.kr
99	화천기연	황성수	왕길동 71-9	563-4348	스파이럴덕트, 스텐레스조립식 이중연도, 사우나장비및기타재	화천기연.kr
100	(주)동해기계	김용규	가좌동 173-273	583-8061~3	하역장비	east-sea.co.kr
101	대일라바테크	김만수	원창동 382-97	579-2300	고무제품(o-ring, packing, gasket)외	dirtech.co.kr
102	(주)보성 인더스트리	임경보	경서동 695	564-0777	인쇄업	bosung84.com
103	대덕 엔지니어링(주)	권순범	당하동691	327-1720	주차설비기계식, 엘리베이터	dkparking.co.kr
104	(주)태영정기	최인태	가좌동 178-258	584-9033	기어, 감속기	ty-reducer.co.kr
105	(주)하나하드닝	송용석	원창동 90번지	576-8335	금속열처리	



## 지역쌀 팔아주기 운동 홍보

최근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식습관의 변화 등으로 쌀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재고량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위해 서구청에서는 지역쌀(서구, 강화)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사오니 지역주민 여러분의 많은 호응 부탁드립니다.

- ▶ 판매가격
  - 서구쌀 : 38,000원(검단농협), 38,000원(검단정미소)
  - 강화쌀 : 40,000원(강화농협)
  - ※ 택배비(3,000원 별도)
- ▶ 판매기간
  - 10월말까지
- ▶ 문의 및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 가을에 먹으면 좋은 음식과 운동

가을은 사절기 중 가장 날씨가 좋고 먹거리도 풍부한 탓에 누구나 기다려왔던 계절이지만, 유난히 높고 맑은 하늘 아래 붉게 단풍 든 산하에 매혹돼 지나치게 쏘다니다 보면 자칫 건강을 소홀히 하기 쉽고, 많은 음식 섭취로 살이 찌기 쉬운 '유혹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가을철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는 손쉬운 운동과 음식을 소개합니다.

### ▶ 가을에 하면 좋은 운동 세 가지

☞ **날갯짓 운동** - 양팔을 양옆으로 또는 앞으로 쭉 뻗고는 새처럼 날갯짓을 힘차게 한다. 대부분 사람들이 운동 부족 부위로 느끼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목, 등 뒤, 앞가슴, 어깨의 근육을 풀어준다. 아침, 점심, 저녁때 3분씩 세 번 하면 좋다.

☞ **30분 걷기** - 출퇴근할 때나, 일하는 동안 하루 30분씩 빠른 걸음으로 걷는다. 땀을 뻘뻘 흘리는 힘든 운동도 일주일에 2-3번 정도 하는 것이 좋으나 30분 걷기는 매일 해야 한다. 특히 뱃살이 많은 사람에게 좋다.

☞ **계단 오르내리기** - 건물 내에서 5층 정도는 무조건 걸어서 오르내리는 습관을 기른다. 5층 정도 올라갈 때에는 아예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겠다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 직장이나 아파트 내에서 2, 3층 정도는 일부러 툼툼이 오르내리는 습관을 키운다.

### ▶ 가을에 먹으면 좋은 음식 세 가지

☞ **콩치**에는 불포화지방산, 그 중에서도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피를 깨끗하게 하고, 두뇌를 맑게

하며,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뛰어나다. 특히 가을이 되면 콩치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더욱 풍부해진다.



☞ **더덕**은 폐의 기능을 강화해주는 작용이 탁월하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하고, 공기가 건조해 코와 기관지의 점액이 마르기 쉬운 가을철에 주로 나타나는 재채기,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을 완화시켜 준다.

또 사포닌과 아미노산, 유리당이 풍부해 혈중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려준다. 찢어서 생으로 먹어도 좋고, 고추장 양념을 해서 구워 먹어도 된다. 우유와 함께 갈아 마셔도 좋다. 증 및 염증, 피부노화에 따른 기미와 잔주름 예방에 효과가 크다.



☞ **늪은호박**에는 베타카로틴이라고 하는 비타민A 성분이 많이 들어 있다. 비타민A는 과도하게 섭취하면 중독 증상을 나타낼 수도 있는 영양소이지만 식물의 베타카로틴 형태로 섭취하면 몸에서 필요한 양만큼 비타민A로 바꿔 쓰게 되므로 과잉섭취를 염려할 필요가 없다.

가을철에 흔히 나타나는 피부건조증 및 염증, 피부노화에 따른 기미와 잔주름 예방에 효과가 크다.



